

제등행렬 금남로 밝히고 광주천 전통燈 전시

광주불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다채로운 봉축행사

5·18광장 20m 봉축탑

22·30일 광주교 음악회

29일 관등법회·시민한마당

단청·연꽃 만들기 체험



지난해 광주불교연합회가 주관한 '빛고을관등회' 행사의 하나로, 광주천에서 진행된 '전통등 전시회'. (광주불교연합회 제공)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5월3일)을 맞아 광주불교연합회가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2017 빛고을관등회'가 오는 14일부터 5월말까지 5·18민주광장, 광주천, 광주시청 앞, 각 사찰 등에서 펼쳐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관등회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다. 5·18민주광장에서 14일 오후 6시30분 진행된다.

올해 세워지는 탑은 한자로 만든 높이 20m 크기 화엄사 4사자 3층석탑이다. 각기 다른 모습의 사자 네 마리가 탑을 받치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5·18광장에 세움으로써 역사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년, 풀 위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전통등(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는 '전통등 전시회'는 올해도 광주천이 주무대다. 한국의 설화를 비롯해 오누이 호랑이, 사물놀이 동자, 백제 건국 주인공 소서노 이야기, 수렴부사, 산신령을 소재로 전통공예작가들이 만든 높이 2m 크기 전통등이 설치된다. 일반 신도들이 무등산, 북주머니, 연꽃 등 전통문양과 풍경을 표현한 장작등을 포함해 총 60개가 5월8일까지 불을 밝힌다.

같은 기간 광주시청 앞에도 전통등이 설치되고 22일·30일 오후 6시30분에는 광주교 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29일은 관등법요식, 대동한마당, 시민한마당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지역 100여개 사찰이 참여하는 관등법요식은 크게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연등행진으로 구성된다.

오후 5시 어울림마당에서는 지난 1월부터 불교회관과 각 사찰에서 연습한 연희단 5000여명이 전통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다. 쉬운 안무로 구성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약 1시간 동안 관등법회가 열린다. 5·18광장은 고려시대까지 대항사가 있었던 자리로 관등법회 의미를 더한다. 법회에서는 세월호 추모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후 7시20분에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인 '제등행진'이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를 광주에 맞춰 구성한 행사로,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역사가 있다. 광주 불교계는 일제강점기 사라졌던

제등행진을 1960년대 복원해 진행하고 있다. 행진에서는 지역 사찰 20여곳이 사물동자, 용, 관세음보살 등을 소재로 만든 전통등을 선보인다.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신자 300명 등 총 5000명이 참여한다. 총 길이는 약 1.5km로,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광주천~종장로~금남로를 거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다.

오후 8시부터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가수 박상철 무대와 함께 타악공연, 율동, 강강수월래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청, 연꽃 만들기, 전통차·아시아음식 시음 등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행사기간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외국인 대상 '사찰음식 맛있는 DAY'를,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붓다의 떡국양'을, 파라미터 광주지부는 병원 환자에게 전통 등 보내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함께 한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각 사찰별로 기념 법회가 열린 예정이다. 문의 062-385-13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수 박상철



김중훈 작 '가을 날에'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회원전 30일까지 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중훈) 회원들이 '흔적'을 주제로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신체적인 아픔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평면 회화 작품 14점과 공예작품 6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김중훈 회장을 비롯해 고경주(귀금속 명장), 정종구(목공예 명장) 등 회원 20명이다.

김 회장은 "이번 시립미술관 초대 전시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중견작가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유와 평온함을 선사한다.

고경주 회원이 작업한 브로치 작품 '당신만을 사랑해'는 빨간 꽃잎이 인상적이다. 단순한 형태와 뚜렷한 색채 대비를 통해 아기자기한 매력을 담았다.

또 정종구 회원이 전시하는 목공예 작품 '소통'은 속이 통나무를 깎아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준다.

김 회장은 "이번 시립미술관 초대 전시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중견작가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늘로 그린 오색봄

예쁜손공예협동조합 회원전...30일까지 LH휴광갤러리

예쁜손공예협동조합 작가들이 LH휴광갤러리(서구 치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에서 '바늘로 봄을 그리다'를 주제로 30일까지 3인전을 연다.

강경숙·김라양·안정민씨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꽃, 인물 등을 천에 수놓은 프랑스 자수 50여점을 선보인다.

프랑스 자수는 색깔과 스티치(바늘질 코·땀) 기법이 풍성한 것이 특징인 자수의 한 종류다. 자수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이름을 따 '프랑스 자수'로 불린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작품은 염색원단과 광목천이 주재료다. 작가들은 분홍,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색칠로 수놓은 꽃을 보여준다. 단순 평면 작품이 아닌 프랑스 자수를 이용해 만든 브로치(장신구)와 실생활에서 사

용가능한 자수 공예 작품들을 전시한다.

조그만 꽃을 담아 시원한 여백이 느껴지는 린넨 이불, 꽃무늬로 장식한 손가방을 비롯해 손으로 만든 인형, 형형색색 바늘꽃이 등 그동안 작업했던 결과물을 공개한다. 또한 아기자기한 북주머니, 버려진 천을 이어붙여 만든 꽃보자기, 쿠션 등을 통해 프랑스 자수 매력을 선사한다.

예쁜손공예협동조합은 안정민 작가가 운영하는 '꿈꾸는 기린 공작소' 소속 작가들로 이뤄진 의류 업사이클링 전문 단체다. 기증받은 물품을 파우치, 공예품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4월 중 광주서구문화센터 등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전 등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늘로 봄을 그리다' 공예전에 출품된 프랑스 자수 보자기.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문화학교' 18일 개교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26기 바다문화학교'를 연다.

올해는 우리나라 해양 역사·문화 영역을 넘어 세계 해양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세력의 해상팽창,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 강좌로 꾸며질 예정이다.

강의는 18일 김주식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이 들려주는 '유럽인은 왜 먼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가?'를 시작으로

로 '바이킹, 북유럽 이야기'(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 '정화의 남해대원정과 학교'(홍성화 부산대 교수) 등이 이어진다.

5월30일과 7월11일에는 각각 총남예산과 강진 현장답사도 떠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누구나 무료(문화유적 답사비 별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061-270-2047)로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현악 18)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조각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장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빛고을, 미디어아트를 켜다

특집

–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어떤 빛깔일까? –
– 생생한 즐거움,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가다 –
– 빛의 도시 밝히는 광주의 미디어아티스트들

기획
영·호남합동원정등반대원 동계훈련 동행 르포
일본 야츠카다게 산군 오르며 등반의 의미 묻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
세계 제일의 인상주의 컬렉션 미적 체험과 창작 이끄는 파리 오르세미술관

노중훈의 꿈의 여행
우뚝한 고대문명의 불가사의의 이집트

예감이 만난 이 사람

코카콜라 애장품 기증 코카콜라 탄생시킨 컬렉터 김용은
'포수 동반 10홀런' 기록 가진 KIA 인방바님 이흥구

복서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테너 조용갑

"꿈꾸는 이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식물명인(사)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킨 360년 증가의 손맛
전통 진장 명인 기순도

예감 초대석

남도 시간 속을 걷다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
대중문화상의 역할과 문제는? 흔들리는 수상의 공정성, 진정한 평가의 가치 훼손

문화 화제
창립 25주년, 동인지 발간한 '시와산문' 동인

트렌드 따라잡기
키덜트들의 레고홀릭 브릭의 세계를 아는가?

아트 뉴스 & 리뷰
오승운의 '꽃과 동수전' 오랑장색에 담은 한국의 정신

가이싱 트레킹스 프로젝트
해강관광 수선도시의 상징, 여수 곡동항

함평
함평천지 너른 등,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